

대구신문

2006년 09월 08일 005면

“겸직 시·도의원 관련 상임위활동 중단해야”

민노당 대구시당

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이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 등 지방의원 겸직 금지와 관련 상임위 활동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.

시당은 7일 성명을 내고 “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 71% 이상의 자기 일을 하면서 의원직을 겸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부실이 우려된다”면서 “더욱이 일부 의원의 경우 직업과 이해관계

가 연관돼있는 상임위원회에 배속돼 있어 해당 상임위 활동에 부정와 비리 의혹을 낳게 될 것이 분명하다”고 주장했다.

시당은 특히 “운송업체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경제·교통·과학·지하철 등을 다루는 ‘경제교통위원회’에 배정된 도이환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취소할 것”을 시의회에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법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.

이현주기자 lhj@idaegu.co.kr